

**6월 18일 '파병일정 종단을 위한 국회대응방안' 토론회
발표 자료. 2004년. 출처 참여연대.공동행동**

팔루자 민간인 학살 2차 보고서

이라크의 광주, 수니 지역 팔루자를 중심으로 본 미군정 피해사례

■조사기간 : 4월 13일~6월 14일

■조사방법 : 증언채록, 직접방문 조사, 인터뷰

■조사자 : 윤정은(31세, 이라크평화네트워크)

알리 알둘레이미(25세, 변호사)

세르민 유니스(53세, 전 아랍어교수)

■조사 일지

- 4월 13일 : 바그다드 서부 알-후리야(Al-Hurriya), 팔루자 난민 증언채록
- 4월 15-16일 : 이라크인 알리 알둘레이미 팔루자 인근 알-사그라위에 방문, 증언채록
- 4월 19일 : 바그다드 알-라오와니아, 팔루자 난민 증언채록
- 4월 24일 : 이라크적십자 지원 팔루자난민 캠프 방문
- 4월 28일 : 바그다드 알-와사쉬(Al-Washash), 팔루자 난민 방문
- 4월 30일 : 바그다드 팔루자 난민 방문 가족 2차 인터뷰
- 5월 1일 : 팔루자 난민 인터뷰 계속
- 5월 2일 : 팔루자 방문(축구장 공동묘지 및 팔루자 2가정 방문 인터뷰)
- 5월 7일 : 팔루자 2차 방문(팔루자 2가정 방문, 국립팔루자 병원 토민-알 모우시리(Dr. Tomeen Al-Mousili) 인터뷰, 축구장 공동묘지 묘지책임자 인터뷰)
- 5월 9일 : 아브그라이브 포로수용소 구금자 풀려난 후 증언 기자회견
- 5월 14일 : 압드-알라자크 -알-사메라이(Abd Alrazaq Al Samray) 모스크 방문, 사망자 명단 건네받음
- 5월 15일 : 팔루자 인근 농촌 마을 알-자지라 하마미야드(Al-Jazeera Hamamiyad) 1차방문, 증언채록
- 5월 16일 : 팔루자 3차 방문, 알 아룩(Al-Farook) 모스크의 아브라힘 셰이크 인터뷰, 팔루자 2가정 방문.
- 5월 20일 : 팔루자 알-모하제린(Al-Mohajereen) 모스크에서 사망자 명단 건네받음
- 5월 22일 : 팔루자 4차 방문, 팔루자 1가정 방문, 팔루자모스크 (Great Falluja Mosque) 자말 셰이커 모하메드(Jamal Shaker Mohamad) 인터뷰
- 5월 24일 : 팔루자 인근 농촌마을 알-자지라 하마미야드 2차방문, 사실조사
- 5월 28일 : 팔루자 5차 방문, 저항세력 무자헤딘 인터뷰
- 6월 9일 아브그라이브 포로수용소 방문 수감자 가족 증언채록

·6월 14일 아브그라이브 포로수용소 방문, 이라크 포로 추가 석방 기록

1. 팔루자 민간인 학살

이라크에 주둔 중인 미군은 지난 4월 4일 밤부터 수니지역 중 반미정서가 강한 팔루자를 완전 봉쇄했다. 미군은 탱크를 동원하여 바그다드에서 팔루자로 통하는 진입로를 포함해서, 30만 이상의 인구가 거주하는 팔루자시를 완전히 외부로부터 고립시켰다. 그리고 봉쇄 다음날인 5일 아침부터 AC-130 중무장 항공기를 동원한 대규모 공중 공격을 개시했다. 그후의 공격양상은 아파치헬기, F-16 전투기 등에 의해 민가와 모스크 등의 무차별적 폭격으로 이어졌다. 이로 인해 민간인들의 피해가 속출하자 수만명의 팔루자 시민들은 팔루자를 빠져나가기 위해 피난길에 올랐다. 이 봉쇄는 5월 1일 팔루자-바그다드 진입로가 열릴 때까지 계속됐고, 팔루자는 총 26일이라는 시간동안 갇혀있었다. 5월 1일 미군이 봉쇄를 풀자, 팔루자 인근 마을과 바그다드로 피난길에 올랐던 팔루자 시민들이 돌아오기 시작했고, 거의 모든 팔루자 난민들이 절반 이상이 돌아온 5월 2일에도 팔루자는 적막한 폐허의 모습을 그대로 하고 있었다.

피난민들은 돌아오자마자 그동안 대충 묻어둔 시체들을 회수해 공동묘지로 쓰이고 있었던 축구장으로 옮겨 묻는 작업을 했다. 또한 파괴된 모스크도 곧바로 복구작업에 착수했다. 이 전쟁으로 인한 희생자수에 대해 의견들이 분분했지만, 최종적으로 모스크들을 통해 사망자수의 700여명, 부상자수는 1500여명으로 집계됐다(출처: 국립 팔루자병원 의사 타민 알-모우시리, 알 파룩 모스크의 성직자 인터뷰)

이 숫자의 밝힌 모스크는 축구장 바로 옆의 위치한 알 파룩 모스크이며, 아브라힘이라는 젊은 셰이크이다. 전쟁 중에 모스크와 성직자들은 사망자를 축구장에 묻는 작업 및 환자들을 돌보는 일과 구호사업 등을 담당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팔루자에서 총 3명의 성직자가 목숨을 잃었다고 전했다.

미군의 이번 팔루자 전쟁에서 민간인의 희생이 컸던 것은 무차별적인 공중 공격이었다는 것이다. 미군정 당국은 처음에는 민간인 희생에 대해 부인을 했지만, 외신보도에 의해서나 피난민들의 증언에서나, 이후 전쟁 종료 후 팔루자에서 만난 성직자와 시민들은 “미군이 모스크나 환자후송차량과 민가 등에도 공격을 퍼붓고, 팔루자를 완전 파괴하려고 했다”는 증언들을 쏟아냈다.

알려진 바로 대규모의 민간인의 희생이 났던 이유와 장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규모 인명피해가 났던 것은 무장항공기를 동원한 무차별적 음단폭격에 의해서인데, 특히 4월 7일, 코브라 공격용 헬리콥터와 F-16 전투기를 동원해 5백파운드의 폭탄을 쏟아부어 민간인 40여명 이상의 희생을 가져온 하이-알-나잘 지역에 위치한 압텔-아지즈 알-사마아이 모스크. 팔루자 관문이 열리고 난 바로 직후, 이 모스크를 방문해서 목격한 바로는 모스크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지경으로 파괴된 상태였다. 폭격 당시 모스크로 피신, 기도하고 있던 40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대로 죽어 그 자리는 고소란히 무덤으로 변했다고 할 정도로 건물 잔해는 가루가 되어 처참하게 무너져 있었다.

또, 민가에 대한 공격에 의해 한꺼번에 20명 이상의 가족이 몰살당한 민가가 위치한 지역은 하이-알-줄란 이다. 미군은 이후에 이 민가에 대한 공격은 오펜이었음을 시인했다. 미군측은 모스크에 가한 공격도, 민가를 향한 발포도 그곳에 무장세력이 은거하고, 무기가

숨겨져 있어서라고 주장했지만, 이 가족의 피해가 각 언론사들의 보도에서 민간인 학살의 증거로 제시되곤 했다.

둘째, 팔루자 시민들을 공포로 몰아갔던 공격은 공중 공격뿐 아니라 저격수를 배치하여 도로 위나 집 안의 사람들의 움직임이 포착되었을 때 사살하는 것이었다. 모든 모스크에는 첩탐이 있다. 그 첩탐 위에 두세명씩 짝을 이뤄 배치된 저격수들은 길 위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 총격을 가했다. 모스크뿐 아니라 건물들의 옥상 위에 배치된 저격수들을 팔루자 시민들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고 갔다.

1 차 보고서에서 이미 저격수에 의한 공격에 의해 사망한 사례들이 증언된 바 있지만, 그 이후에 저격수에 의해 가족이 사망한 증언자들은 더 있었다. 나쉬미야 압바스(Nashmiyah Abas, 80세)의 증언에 의하면 여성들 또한 저격수에 의해 죽음을 당한 케이스이다. 그녀의 조카딸이 저격수의 공격에 의해 사망했다. 또한 하이-알-나잘에 사는 아흐메트 칼라프(Ahmed Khalaf, 48세)의 조카 또한 미군 저격수에 의해 사망했다고 증언했다. 아흐메트 칼라프는 미군의 팔루자 봉쇄로 인해 바그다드로 피난 나와 이라크적십자사에 지원하는 난민캠프에서 만났다. 당시 4월 24일 그를 만났을 때가, 팔루자를 떠난 지 15일째 되는 날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만났던 다하 아셀 Daha Ashel(24세) 또한 가까운 친척이 미군의 팔루자 공격 첫날인 4월 5일 아침에 토마토를 사러 나갔다가 미군이 쏜 총에 맞아 죽었다고 전했다.

셋째, 미군의 공격이 민간인들을 향해 무차별적인 공격이었다는 것이 입증하는 또다른 증거들은 5월 2일 팔루자 거리에 곳곳에 폭발된 채 서있는 자동차와 불탄 엠블런스이다. 팔루자 진입로에서 가까운 하이-알-나잘 지역에 방문했을 때, 이 작은 동네를 지나치는데 불탄 차량을 세 대나 발견했는데, 하나가 환자후송차량이었으며, 두 대는 자동차였다. 시신을 찾으러 온 가족들에 의하면, 자동차 한 대에는 여자 혼자 타고 있었으며 미군이 공중에서 폭격을 가해 자동차가 그 자리에서 전소했다. 이 자동차와 불과 100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거리에 불탄채로 정차해있는 자동차에는 부부와 친척 한 명을 포함해 세 명이 타고 있었으며 시체는 불타고 흔적도 없었다. 가족들이 잔해도 찾아볼 수 없는 그곳에서 그저 망연자실하고 있었다. 이것은 지나가는 차량에 무차별적으로 폭격한 사례이다.

이렇듯 미군측은 이번 4월에 있었던 팔루자 공격을 두고, 저항세력에 대한 소탕작전이었다고 밝히고 있지만, 군사작전이라고 명명하기에는 민간인의 피해가 너무나 컸다. 또한 미군은 4월 8일 이후, 피난민들이 빠져나간 후 팔루자에 남은 남성들의 경우 무장세력으로 간주한다고 주장했지만, 팔루자에 끝까지 남았던 사람들은 종교인들과 가족의 연장자 및 가장들이었고, 어린이와 여성들을 인근 바그다드로 피난보낸 후 그들은 집과 고향을 지키기 위해 팔루자에 그대로 남았다. 그리고 설사 남은 사람들의 일부가 부득이하게 총을 들었다고 한들 그들은 엄연한 민간인이었고, 각종 생업에 종사해 가족들을 부양하는 팔루자 시민들이었다.

2. 사망자 명단

다음은 이번 전쟁으로 사망한 사람들의 명단이다. 이 명단은 팔루자에 위치한 세 곳의 모스크를 통해 입수되었으며, 이번 전쟁 중 사망자의 이장 및 장례 일정들은 모스크의 관할 하에 이루어졌다.

애초의 조사계획 일정에는 700여명 이상의 사망자 명단을 회수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112명의 명단을 입수할 즈음 이 명단 작업에 동의하지 않는 모스크들의 반발에 의해 중도 포기되었다. 이 조사 목적을 이해하는 이라크 세이크(성직자)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 계획은 계속 진행되지 못했다. 반대의 이유는 “미군정을 위한 정보로 쓰인다”는 우려가 최종 통보되었는데, 이 납득할 수 없는 답변이 지금의 팔루자 시민들의 극도의 민감한 정서를 대변해주는 것이라고밖에 이해할 길이 없다. 1년동안 미군에 의한 민간인 피해가 극심한 지역이며, 지난 4월의 전쟁으로 인해 외국인은 말할 것도 없고, 바그다드를 포함한 외지 사람들의 출입과 활동 또한 자유롭지 않는 형편이다.

■명단에는 성별은 표시되어 있지만, 연령 구분이 되지 못했다. 따라서 어린이의 경우 이름만으로는 식별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번 전쟁에서 사망한 어린이 숫자가 성인 여성의 숫자보다 훨씬 많다고 알려졌지만, 구분이 되지 못했다.

■명단을 검토해 보면, 같은 날, 지역 지역에서 성이 일치하고 이름이 다른 사망자를 더러 발견할 수 있다. 이는 한 가족이 함께 폭격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4, 5, 6 번 누르 마흐무드 아테아, 라이라 마흐무드 아테아, 아도웨아 마흐무드 아테아의 경우는 한 일가족의 세 명의 여성이 동시에 죽은 것으로 보이는 예이다.

■명단을 제공해준 모스크는 압드-알라자크 -알-사메라이(Abd Alrazaq Al Samray) 와 알-모하제린(Al-Mohajereen) 모스크 및 알-파룩(Al-Farook) 모스크이다.

■ 이 모스크를 통해 전해받은 사망자의 총수는 112 명이다.

남성 : 68 명

여성 : 44 명

■날짜별, 거주 지역별로 사망자수를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날짜별

7 일	8 일	9 일	10 일	11 일	12 일	13 일	14 일	15 일	16 일	17 일	18 일	19 일
1 명	4	20	17	20	9	3	5	13	5	2	11	2

■거주 지역별

Nazzal	Askary	Jullan	Shohdaa	Shorta	Dubat
32 명	41 명	21 명	11 명	2 명	5 명

■사망자 명단

번호	이름	성별	매장 날짜	거주 지역
1	알라 압바스 알 즈레시 (Alaa Abbas Al Jressy)	남	4 월 16 일	알 줄란 (Al-jullan)
2	알리 압둘 가리브 (Ali Abdul Ghareeb)	남	4 월 10 일	알 줄란
3	케페아 카라프 알리 (Kefyaaa Khalaf Ali)	여	4 월 10 일	알 줄란
4	누르 마흐무드 아테아 (Noor Mahmood Atea)	여	4 월 18 일	알 줄란
5	라이라 마흐무드 아테아 (Layla Mahmood Atea)	여	4 월 18 일	알 줄란
6	아도웨아 마흐무드 아테아 (Adowea Mahmood Atea)	여	4 월 18 일	알 줄란
7	소함 카라프 알리 (Soham Khalaf Ali)	여	4 월 7 일	알 쇼흐다 (Al Shohdaa)
8	아메드 모크흐리프 아비드	남	4 월 9 일	알 쇼흐다

	(Ahmed Mokhlif Abid)			
9	살림 아메드 알리(Salim Ahmed Ali)	남	4월 12일	알 쇼흐다
10	와리드 압둘 하미드 하미드 (Waleed Abdul Hameed Hamid)	남	4월 12일	알 나잘 (Al Nazzal)
11	살만 하디 하산 (Salman hadee hasan)	남	4월 15일	알 나잘
12	에마드 모크리프 제르단 (Emad Mokhlif Jerdaan)	남	4월 11일	알 나잘
13	사헤라 노와프 하마드 (Sahera Nowaf Hamad)	여	4월 8일	알 나잘
14	아메라 사이드 마흐무드 (Amera Saeed Mahmood)	여	4월 12일	알 나잘
15	아스완 아딜 마키 (Aswan Aadil Maky)	여	4월 18일	알 아스카리 (Al Askary)
16	와리드 그하리드 자심 (Waleed khalid Jassim)	남	4월 15일	알 아스카리
17	하니 하미드 마흐무드 (Hany Hameed Mahmood)	남	4월 9일	알 두바트 (Al Dubat)
18	사이드 알리 파딜 (Saeed Ali Fadil)	남	4월 9일	알 두바트
19	하디 하산 마흐무드 (Hady Hasan Mahmood)	남	4월 15일	알 줄란 (Al Jullana)
20	보스라 크하리파 하디 (Boshraa Khaleefa Hady)	여	4월 15일	알 쇼르타 (Al Shorta)
21	사라 오메르 알리 (Sara Omer Ali)	여	4월 16일	알 쇼르타
22	코사이 사미 파야드 (Qosay Samee Fayaad)	남	4월 14일	알 줄란 (Al Jullan)
23	아딜 모하메드 파야드 (Aadil Mohamed Fayaad)	남	4월 15일	알 줄란
24	오드만 칼리파 오드완 (Othemaan Khaleefa Odawan)	남	4월 14일	알 줄란
25	모함메드 크할파프 살완 (Mohamed Khalaf Salwan)	남	4월 12일	알 줄란
26	나지 자발 하심 (Najy Jabbar Hashim)	남	4월 11일	알 줄란
27	모쉬리프 아비드 하산 (Moshrif Abid Hasan)	남	4월 11일	알 줄란
28	크하릴 하순 사드(Khaleel Hasoon Saad)	남	4월 8일	알 줄란
29	마헤르 라쉬드 알완 (Maher Rasheed Alwan)	남	4월 9일	알 줄란
30	사나 자발 하산 (Sanaa Jabbar Hasan)	여	4월 8일	알 나잘 (Al Nazzal)
31	쇼크레아 아테아 아메르 (Shokrea Atea Aamer)	여	4월 8일	알 나잘
32	카오라 오메르 카릴 (Khaola Omer Khaleel)	여	4월 12일	알 나잘

33	이만 마르완 엠티힘 (Eeman Marwan Ebraheem)	여	4월 15일	알 쇼흐다 (Al Shohdaa)
34	셰이커 크하레파 알리 (Shaker Khalefa Ali)	남	4월 15일	알 쇼흐다
35	하마디 하산 아메르(Hammady Hasan amer)	남	4월 17일	알 아스카리
36	테크라 사미 호센(Thekra Samee Hosen)	여	4월 17일	알 아스카리
37	카이스 호센 자라라 (Qais Hosen Jaralah)	남	4월 18일	알 아스카리
38	소우산 바데르 카딤 (Sowsan Bader Kadim)	여	4월 18일	알 아스카리
39	알라 압두라 스타르 케데르 (Alaa Abdula Staar Kheder)	남	4월 18일	알 아스카리
40	사메아 알리 호센 나지 (Samea Ali Hosen Najy)	여	4월 18일	알 아스카리
41	소라 케데르 호센 (Sorya Kheder Hosen)	여	4월 16일	알 두바트 (Al Dubat)
42	아메르 알리 오메르 알 코바이시 (Aamer Ali Omer Al Kobaicy)	남	4월 16일	알 줄란 (Al Jullan)
43	와센 하디 나지 (Wasen Hady Najy)	여	4월 15일	알 줄란
44	타하 라티프 알완 (Taha lateef alwan)	남	4월 15일	알 나잘
45	바세마 살림 엠티힘 (Basema Salim Ebraheem)	여	4월 15일	알 나잘
46	아흐메드 호센 아부라 (Ahmed Hosen Abula)	남	4월 9일	알 나잘
47	아흐메드 아비드 호센 칼라프 (Ahmed Abid Hosen Khalaf)	남	4월 9일	알 나잘
48	호삼 모하메드 마지드 알 에사오이 (Hosam Mohamed Majeed Al Esaoy)	남	4월 9일	알 나잘
49	사미라 카리드 호센 (Sameera Khalid Hosen)	여	4월 9일	알 나잘
50	아킬 자심 헤크마트(Aqeel Jassim Hekmat)	남	4월 9일	알 나잘
51	유니스 자심 홈마디 (Unis Jassim Hommady)	남	4월 9일	알 아스카리 (Al Askary)
52	살람 마지드 호센 칼라프 (Salam Majeed Hosen Khalaf)	여	4월 9일	알 아스카리
53	알리 오마르 카릴 알 코바이시 (Ali Omar Khaleel Al Kobaicy)	남	4월 9일	알 아스카리
54	사데아 아흐메드 나지(Sadea Ahmed Najy)	여	4월 9일	알 아스카리
55	사돈 아흐메드 므나지드 (Saadon Ahmed Mnajid)	남	4월 9일	알 아스카리
56	알라 에스마일 야센 (Alaa Esmaeel Yasen)	남	4월 9일	알 두바트 (Al Dubat)
57	앗사드 아비드 아흐메드 (Assad Abid Ahmed)	남	4월 9일	알 두바트

58	알리 모흐센 오마르 알 코배시 (Ali Mohsen Omar Al Kobaicy)	남	4월 10일	알줄란 (Al Jullan)
59	카리마 사드 호센(Kareema Saad Hosen)	여	4월 10일	알줄란
60	카림 사드 호센 (Kareem Saad Hosen)	남	4월 10일	알줄란
61	소아드 카리드 모흐신 (Soaad Khalid Mohsin)	여	4월 10일	알줄란
62	호센 하디 카딤 (Hosen Hadee Kadim)	남	4월 10일	알줄란
63	네달 카림 투우픽 (Nedal Kareem towfeek)	여	4월 10일	알줄란
64	자심 압바스 살만 (Jassim Abbas Salman)	남	4월 11일	알줄란
65	노와펠 노와프 압바스 (Nowfel Nowaf Abbas)	남	4월 11일	알나잘 (Al Nazzal)
66	암자드 모한네드 카심 (Amjad Mohammed Kassim)	남	4월 11일	알나잘
67	알리아 압바스 알라위 (Aliaa Abbas Alawee)	여	4월 11일	알나잘
68	살림 카라프 하디(Salim Khalaf Hadee)	남	4월 11일	알나잘
69	이브라힘 살만 아흐메드 (Ibraheem Salman Ahmed)	남	4월 9일	알나잘
70	아흐메드 크하라프 마사오드 (Ahmed Khalaf Masaod)	남	4월 9일	알나잘
71	사로안 모하메드 하디 (Saloan Mohamed hadi)	남	4월 9일	알나잘
72	아마르 알리 사돈(Ammar Ali Saadon)	남	4월 9일	알나잘
73	아마르 사드 나시르(Ammar Saad Nasir)	남	4월 10일	알나잘
74	사미르 아흐메드 카라프 (Sameer Ahmed Khalaf)	남	4월 10일	알아스카리 (Al Askary)
75	야시르 압드 호센(Yasir Abd Hosen)	남	4월 10일	알아스카리
76	나시르 살만 마제드(Nasir Salman Majed)	남	4월 10일	알아스카리
77	살림 모하메드 압둘라 (Saleem Mohamed Abdula)	남	4월 10일	알아스카리
78	크하미스 모하메드 사드 (Khamees Mohamed Saad)	남	4월 10일	알아스카리
79	사메르 예아드 미크흐리프 (Samer Ead Mikhlif)	남	4월 10일	알줄란 (Al Jullan)
80	마디아 사히르 아비드(Madia Sahir Abid)	여	4월 10일	알줄란
81	소하이라 압바스 하메드 (Sohaila Abbas Hamed)	여	4월 10일	알줄란
82	카리마 모함메드 파야드 (Kareema Mohammed Faiad)	여	4월 11일	알줄란
83	나디아 모흐센 이사(Nadia Mohsen eesa)	여	4월 11일	알줄란
84	모한네드 압바스 알리 (Mohanned Abbas Ali)	남	4월 11일	알줄란

85	리아드 칼푸 모타니쉬 (Riad Khalf Motannish)	남	4월 18일	알 줄란
86	소하이르 모하메드 하디 (Sohair Mohamed Hadi)	여	4월 18일	알 줄란
87	모스타파 모하메드 오마르 (Mostafa Mohamed Omar)	남	4월 19일	알 아스카리 (Al Askary)
88	오마르 나지 파라즈(Omar Najee Faraj)	남	4월 19일	알 아스카리
89	바스마 홈마디 아사드 (Basma Hommadi Asaad)	여	4월 19일	알 아스카리
90	크하메스 호센 카라프 (Khames Hosen Khalaf)	남	4월 11일	알 줄란 (Al Jullan)
91	아비르 하디 자비르(Abeer Hadee Jabir)	여	4월 11일	알 줄란
92	니브라스 하센 카릴 (Nibrass Hasen Khaleel)	여	4월 11일	알 줄란
93	오마르 하디 하센(Omar Hadee Hasen)	남	4월 11일	알 줄란
94	바라카트 자발 압바스 (Barakat Jabbar Abbas)	남	4월 11일	알 줄란
95	예아시르 아테아 아미르 (Yeasir Atea Aamir)	남	4월 12일	알 줄란
96	호다 아미에 카릴(Hoda Aamie Khaleel)	여	4월 12일	알 줄란
97	마이순 자발 압바스(Maisoon Jabbar Abbas)	여	4월 12일	알 줄란
98	와드하 자비르 모흐신(Wadha Jabir Mohsin)	여	4월 12일	알 줄란
99	하디에아 모하메드 즈베르 (Hadied Mohamed Jber)	여	4월 11일	알 나잘 (Al Nazzal)
100	사디아 크하릴 자심(Saadia Khaleel Jasim)	여	4월 11일	알 나잘
101	오마르 하디 하센(Omar Hadi Hasen)	남	4월 11일	알 나잘
102	노리아 크하라프 이단(Noria Khalaf Eedan)	여	4월 11일	알 나잘
103	라피드 자심 오베아드(Rafid Jasim Obead)	남	4월 13일	알 나잘
104	하디 모흐신 오마르(Hadi Mohsin Omar)	남	4월 13일	알 나잘
105	사헤라 압바스 마지드 (Sahera Abbas Majeed)	여	4월 13일	알 나잘
106	웨삼 크하렐 아메르(Wesam Khaleel Amer)	남	4월 14일	알 나잘
107	모하메드 하데 하센 (Mohamed Hade Hasen)	남	4월 14일	알 쇼흐다 (Al Shohdaa)
108	하메드 목흐리프 하마디 (Hamed Mokhlif Hamadi)	남	4월 14일	알 쇼흐다
109	아씨르 카리드 자셈 (Atheer Khalid Jasem)	남	4월 15일	알 쇼흐다
110	알라 모사라프 아비드 (Alaa Mosharaf Abid)	남	4월 15일	알 쇼흐다
111	사네아 하멘디 하센 (Sanea Hamendi Hasen)	여	4월 16일	알 쇼흐다
112	파쉴아 아흐메드 압바스 (Fatheaa Ahmed Abbas)	여	4월 15일	알 쇼흐다

3. 수니삼각지역의 민간인 피해

팔루자는 수니삼각지역(라마드, 티그리트, 바그다드를 잇는 지역을 일컫음)에 위치한 지역 중 반미정서가 가장 강한 지역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이것을 역으로 말하면 이라크전쟁 후 1년동안 미군정에 의해 저항세력 소탕작전이 가장 심하게 진행됐고, 그로 인한 민간인 피해가 가장 극심한 지역 중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

- 전쟁 후 일자리를 잃은 가장들의 실업난과 가족들의 어려운 생활
- 밤낮을 가리지 않은 미군에 의한 가택수사(저항세력 소탕작전)
- 전쟁 포로로 아브그레이브 포로수용소 구금 및 학대
- 미군의 발포에 의한 민간인 피해

이외에 크고 작은 민간인 피해는 1년동안 수니지역, 특히 팔루자와 인근지역에서 끊이지 않고 일어나 주민들은 “사담 시절에는 우리는 억압받고 살았지만, 조용하게는 살았다”고 말할 정도이다. 지난 1년동안 일상화된 미군의 폭력으로 팔루자 주민들은 하루라도 조용하게 일상생활을 누릴 수가 없었던 것이다.

지금도 폭격이 멈추었지만 여전히 팔루자 주민들은 주권이 없는 국가에서 외국 군대에 의해 고통받고 있다. 아래 사례는 15가구 안팎으로 보이는 작은 마을 안에서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한달여동안 벌어진 비극에 관련한 것이다. 팔루자 인근 농촌마을인 알-자지라 하마미야드라는 마을에서 벌어진 이 가족의 비극은 비단 특별한 사례가 아니다. 팔루자 인근 라마디를 비롯하여 수니 모든 지역과 마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미군정에 의한 피해사례이며, 가족들의 죽음과 실종 앞에서도 어디에도 하소연할 데 없는 이라크 사람들의 절망적인 생활이다.

■팔루자 인근 농촌 마을인 알-자지라 하마미야드

이 작은 마을에서는 지난 4월 미군의 팔루자 공격과 동시에 인근 마을에도 똑같은 공중 폭격을 가해 이 마을에서는 5명의 사망자와 6명의 부상자가 있었다. 사망자는 66세의 노인 한명, 1-2살 사이의 남자 어린이와 역시 갓난아기인 여자 어린이 한명, 60세가 넘는 여성 한 명과 장년층의 여성 한 명. 가난한 시골 마을을 지키는 노인과 어린이들이 미군의 총에 의해 그리고 마을에 가한 폭격에 의해 사망했다.

■파우지야 무신 알 자나비(여, 40세) 가족 사례

이 가족에게 닥친 불행은 전형적인 미군정의 피해 사례를 살펴볼 수 있게 한다. 가족들은 지난 미군의 팔루자 공격에서 폭격으로 인한 사망은 없었다. 그러나 팔루자가 여전히 봉쇄되어 있는 때인 4월 25일, 미군은 팔루자 인근에서 무차별 발포로 파우지야 남편 후세인-마수드-알자나비와 막내아들인 푸아드(15세)를 죽였다. 그리고도 그 시체를 그대로 방치 이 가족이 스스로 노력으로 남편의 시체를 매장한 미군 기지 옆의 사막에서 시신을 거둬 이장을 했고, 막내아들 푸아드의 시신은 지금까지도 찾지 못하고 있다. 남편과 막내 아들이 사망한 경로는 다음과 같다. 두 사람은 4월 25일 마을에서 인근 도시인 라마디로 갔다가 저녁이 늦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두 사람이 타고간 차는 며칠 후, 라마디에서 돌아오는 도로에서 발견되었지만, 두 사람은 모습은 찾을 수가 없었다. 차의 유리창은 총에 맞아 깨진 상태였고, 좌석 또한 총알이 지나간 흔적이 있었다.

이것은 조사하러 이 마을을 방문한 5월 15일과 24일, 차는 집 바깥에 세워져 있어서 자세히 총알의 방향을 촬영 및 검토할 수 있었다.

총알이 지나간 유리창의 흔적으로 보아선 난사를 한 것이 아니라 차안에 탄 사람을 노린 정확한 조준이었다. 이 조준으로 크게 다친 사람은 운전석에 있었던 남편 후세인이 아니라 막내아들, 15살밖에 되지 않은 푸아드였다. 푸아드가 가슴에 총을 맞았다. 갑작스런 충격으로 남편 후세인이 차를 세웠으나 그 과정에서 그 또한 심한 부상을 입었다. 미군은 부자가 피를 흘리고 있는 차에 다가와 총에 맞은 푸아드는 그 자리에 두고, 남편 후세인만 차에 태워 인근 하바니야 미군 부대로 끌고 갔다.(가족들이 찾은 목격자의 증언에 근거함) 며칠동안 미군은 후세인에게 치료 및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채 부대에 그대로 두었고, 후세인은 이 과정에서 과다출혈로 며칠 후 숨졌다. 미군은 후세인이 죽자 이라크 현지인 통역원을 시켜 부대 밖 사막에 묻도록 했다. 통역원은 남편의 주머니에 있던 ID카드(주민등록증)를 꺼내 자신이 보관하고는 후세인을 묻었다.

파우지야 가족은 남편과 막내아들이 돌아오지 않은 10일동안 그들의 생사를 확인하려 다녔다. 10일 후, 미군 부대에서 일하는 통역원이 집으로 찾아와 자신이 남편 후세인을 묻었으며,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남편을 묻은 위치를 알려주곤 떠났다. 파우지야는 그곳 위치를 잘 아는 현지인을 데리고 가서 대충 묻혀진 남편의 시체를 찾았다. 그리곤 썩은 남편의 시체를 땅에서 꺼내 이장을 했다.

막내 아들 푸아드는 어찌되었는지 아무도 모른다. 당시 사건 목격자 중 한 사람이 총에 맞아 죽은 푸아드는 삼마라 병원으로 옮겨졌고, 냉동시체보관실에 있을 거라고 말해서 그리고 달려갔지만 푸아드의 시체를 찾을 순 없었다.

행방불명된 막내 아들은 죽었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으나, 어머니 파우지야는 시체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혹시나 살아있을지도 모른다고 믿고 있다.

이 가족의 비극은 남편과 막내아들의 죽음에서 끝나지 않는다. 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인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미군에 의해 끌려가 아브그레이브 포로수용소에 감금되어 있는 상태이다.

아들이미군에 의해 끌려간 당시는 팔루자가 미군에 의해 완전히 봉쇄된 지 20여일째 되는 4월 22일이었다. 팔루자에서 연일 교전이 있던 때였고, 미군은 팔루자 인근 농촌 마을에 있는 젊은 남자들을 닥치는대로 체포해갔다. 4월 22일 모두 잠들어 있는 이른 새벽, 미군은 잠들어있는 파우지야의 집에 총을 들고 집안으로 들어왔다. 이미 집 주위는 미군에 의해 완전 포위된 상태였다. 미군은 총구를 남자들에게 들이대며 일어나라고 하고, 여자들은 방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겁에 질린 아이들은 울어대기 시작했다. 잠에서 덜 깬 큰 아들 사담 알 자나비(22세)과 둘째 아들 아마드(18세)은 그 자리에서 미군의 군홧발에 차여 꼬부라졌다. 그리고 미군에 의해 밖으로 끌려간 두 아들은 마당에 내동댕이쳐졌다. 큰 아들 사담이 일어나지 못하자, 미군 한 명이 그에게 다가가 발로 사담의 머리를 짓이겼다. 이 장면을 목격한 어머니 파우지야는 너무도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미군의 옆에서 통역을 맡은 이라크 현지인은 “당신의 두 아들이 무자헤딘(무장저항세력)이기 때문에 잡아간다”고 말하는 동시에, 미군들은 “야, 넌 사담 후세인이야”라며 말하며 그녀의 두 아들에게 하는 폭력을 멈추지 않았다.

이렇듯 현재 미군이 저항세력이라는 죄목으로 이라크 사람들을 아브그레이브 감옥에 투옥할 때, 대부분은 현지에서 고용한 첩자(스파이)를 동원하는데, 오로지 영어를 할 줄 아는 통역원과 스파이의 말에 의존하여 어떤 증거도 없이 체포한다.

미군은 두 아들의 손과 발을 묶고, 머리에 검은 천을 씌우고는 체포해갔다.

또한, 이 가족에게 닥친 불행은 부양할 책임을 가진 남자들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가족의 생계수단인 가족들도 도살됐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끌려간 며칠 후, 미군들은

마을의 양과 소에게까지도 총질을 해, 파우지야 가족은 소 세마리와 양 여섯마리를 잃었다. 가족은 이라크 농촌마을에서 생계수단이다. 미군이 가족들을 죽인 이유는, 며칠 전 인근도로에 설치된 지뢰에 의해 미군 전차 한대의 피해가 있었다고 한다. 미군들은 이 마을 사람들이 지뢰를 매설했다고 생각하고, 보복으로 가족들을 죽였다.

이 마을 주민들은 생계수단인 가족들이 죽음을 당하자 죽은 가족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다 촬영을 해냈지만 어디에 가서 그 피해에 대해 보상을 호소할지 알지 못한다. 둘째 아들 아마드(18세)는 얼마전 몇 차례 있었던 이라크 포로 석방이 있을 때, 풀려났다. 그러나 큰 아들 사담(22세)은 여전히 아브그레이브 감옥에 있다.

이 가족의 사례를 통해, 미군에 의한 무차별 사격으로 인한 죽음과 아브그레이브 포로수용소 구금의 예를 살펴볼 수 있다. 미군은 이라크 사람을 쏘는 데 큰 이유가 없다. 저항세력들이 매설한 지뢰에 의해 미군의 희생이 있는 날이기라도 하면, 미군은 가족이든 사람이든 총으로 보복한다. 그리고 저항세력이라고 판단하고 아브그레이브 감옥에 투옥하는 절차도 대부분 현지인 정보원이나 첩자를 고용해 그들의 정보에만 의존하여 체포해가고는 정확한 증거 제시 절차나 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그 과정에서 고문 및 학대에 대한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

■ 라마디 인근 카르디에 마을

라마디 또한 수니삼각지역에 속한 지역으로 미군에 의한 민간인 피해가 극심한 지역이다. 다음 사례는 아직 학교에 다녀야 할 소년이 저항세력이라는 이름으로 아브그레이브 감옥에 끌려가면서 닥친 가족의 피해에 관련한 것이다.

윌리두 칼리드 압바스 (16세)는 라마디 인근 카르디에라는 농촌 마을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 소년은 현재 아브그레이브 감옥에 1년째 갇혀있다. 농부인 아버지 칼리드 압바스 모하메드는 아들을 면회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아브그레이브 감옥으로 향한다. 윌리두의 어머니는 다리를 다쳐 9개월동안 병원에 입원해있었으며, 현재는 돈이 없어 집으로 옮긴 상태이다. 어머니가 다리를 다친 배경은 윌리두가 잡혀가던 날, 심하게 울며 미군에게 매달리며 아들을 놓아줄 것과 아들의 무고함을 주장하자 미군이 군홧발로 그녀의 다리를 차고 밟아서 무릎 관절을 심하게 다쳐 지금도 거동이 불편하다고 말했다.

아들이 저항세력이었냐는 질문에, 아버지 칼리드 압바스 모하메드는 자신의 손을 펼쳐 보여주었다. 굳은 살이 박힌 전형적인 농부의 손이었다. “내 손을 보면 알 것이다. 나는 평생 농사를 지어온 농부이다, 아들 윌리두도 나와 함께 농사를 짓던 아이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4. 수니지역 포로수용소 아브그레이브

위의 사례에서 보더라도 16세, 18세에 불과한 소년들까지도 아브그레이브 포로수용소에 끌려가는 사례들이 있다. 이런 사례를 통해 우리에게 끊임없는 의문을 가지게 하는 것은 미군이 주장하는 무장저항세력(무자헤딘)과 테러리스트들은 도데체 누구인가라는 것이다. 그리고 한 사람을 무자헤딘이라고 간주하고 포로수용소에 감금하기까지 근거와 증거와 절차가 어떤지 사뭇 궁금해진다.

이번 4월, 팔투자를 피로 몰들였던 미군이 내내 주장하는 것은 “무장세력, 무자헤딘이었기 때문에 폭격을 한 것이다”라는 것이다. 무차별적으로 폭격하고 “무자헤딘이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브그레이브 포로수용소에 감금되는 이유 또한 “무장세력, 무자헤딘이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한다.

크게 정리해보면 포로수용소 구금자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끌려간다.

- 정치적 혹은 종교적 믿음 때문에(대부분은 바트당원이거나 이슬람주의자)
- 점령을 반대하는 인사를 접촉하거나 만난 경우 혹은 가족이 저항활동에 연루되어 있는 경우.
- 저항세력들에게 돈을 건넨 경우
- 저항활동에 가담한 경우

그러나 체포와 구금에 대한 이 근거들이 합당한가에 대해 따지는 것을 차후로 하더라도, 체포시 이 근거나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채 무고한 사람들이 잡혀가는 사례는 도처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정확한 근거나 증거 제시 없이 대부분 첩자(스파이)들의 밀고만으로도 끌려가는 예가 허다하다. 매일같이 아브그레이브 감옥 앞에서 가족을 면회하기 위해 기다리는

사람들을 만나 면담을 가져보면, 그 사람들은 ‘왜 자신의 남편이나 아이들이 형제들이 아브그레이브 감옥에 갇혀있는지’ 그 죄목에 대해 정확히 설명하지 못한다. 다만 언제나 가족들에게서 되돌아오는 답변은 “갑자기 미군들이 새벽에, 밤에, 집안으로 들어와서 우리 아이들을 잡아갔다”이다. 그리고 미군 옆에서 일하는 통역원들은 “당신의 아들이, 남편이 무자헤딘이다”라는 말을 했다는 것이다.

아브그레이브 포로 학대와 고문이 외부 세계로 알려지고, 연합군의 가혹하고 비인간적인 포로 학대에 대해 세계 여론이 비난에 나서자, 연합군임시행정처는 잇따라 이라크 포로들을 석방했다. 정권이양을 앞둔 6월에는 6일 320명, 14일 400명의 포로들이 석방되는 등 포로학대 고문 문제가 불거지자 미군측은 5차례에 걸쳐 포로들을 석방했다. 포로수용소 구금자들은 석방 후에도 수용소 안에서의 학대와 고문에 대해 증언하는 것에 대해 극도로 꺼린다. 이것은 이라크 사회, 문화적인 배경에서는 신체에 대한 학대 경험이 극도의 수치감을 불러오고 있으며, 이것이 밖으로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이것은 여성 수감자들뿐 아니라 남성 수감자들도 마찬가지이다.

명예를 생명보다 더욱 신성시하는 사회문화적인 배경 때문이다.

그리고 포로들이 풀려나서 증언을 꺼리는 데에는 이런 사회문화적인 이유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다른 이유도 존재한다. 풀려나기 전에 수감자들은 우리 사회에서 말하면, 일종의 전향서 같은 문서에 사인을 하고 나오는데, 그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적혀있다.

“만약 바트당원이었다면, 당으로 돌아가서 활동할 수 없으며, 전 당원이었던 사람들을 접촉할 시에는 점령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모든 구금자들은 집밖 10km 밖을 벗어날 경우, 신고해야 한다. 또한 무슨 활동을 하든, 어디를 여행하든 신고해야 하며, 만약 이런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시에 다시 재수감될 수 있다.”

수감되었다가 풀려난 수감자들의 경우나 수감되어 있는 가족들을 인터뷰해보면, 미군이 이라크 현지인을 동원하여 첩보활동을 벌인 정보에만 의존하여 저항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다. 이 경우에 많은 경우가 첩보활동을 하는 통역원이나 정보원들이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그리고 그 후에 포로들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와 인터뷰가 생략되고 고문과 학대로 이어진 경우들이 많다.

이렇게 무고한 시민들이 일상생활 도중에 집안으로 난입한 미군들에 의해 잡혀가는 예도 너무도 많아서 그 예를 다 소개하지 못할 정도이다.

한편 이라크 사회에서 존경을 받는 모스크의 성직자들 또한 포로로 수감되는 경우도 많다. 팔루자에서 대표적으로 큰 모스크인 팔루자 모스크(Great Falluja Mosque)에서 가장 권위있는 성직자인 자말 셰이크 모하메드(Jamal Shaker Mohamad, 62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 예를 통해서 수니지역의 포로수용소인 아브그레이브 감옥과 팔루자 시민들의 저항의식의 상관관계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자말 셰이크 모하메드 인터뷰

그가 아브그레이브 감옥에서 풀려난 지 2주째가 되는 날, 그의 집무실에서 만났다. 그는 2003년 10월 12일에 미군들에 의해 체포됐다. 물론 그의 잡혀가는 과정이나 아브그레이브 감옥에서의 생활은 이 도시 팔루자에서는 지극히 흔하고 흔한 일이다. 미군들이 새벽 2시 30분경 모스크 바로 옆의 그의 집을 둘러싸고 집안으로 들어왔다. 이때 그는 집 문을 열어 미군들이 들어오게 했다고 한다. 미군들이 그의 집에 들어온 이유는 그의 여동생의 남편인 Barakat를 찾기 위함이었는데, 그를 찾을 수 없자, 대신 성직자인 그를 잡아갔다. 이러한 경우는 허다하다. 남편을 잡기 위해 가택수사를 하러 왔다가 찾지 못하면, 그의 부인이나 다른 가족들을 잡아간다. 그리고 미군들은 성직자 자말뿐만 아니라 모스크에서 종교수업을 위해 머물고 있는 학생 5명을 함께 잡아갔다. 처음에 경찰서에서 이들을 보내고, 인근 미군 기지로 쓰이고 있는 '사담 농장(Dreamland Farm)으로 끌려가 하루 후에 4명의 학생은 풀려나고, 1명의 학생과 그는 아브그레이브 감옥에 갇히게 된다. 그들이 그에게 씌운 죄목은 금요일 설교 내용과 사담 후세인과의 관련성이었는데, 후자의 경우 사담 후세인과 자신이 관련이 있다는 고발내용은 근거없는 얘기라고 그는 주장했다. 그가 미군에게 지목과 감시를 받게 된 것은 지난해 미군들과 팔루자 시장과 다른 도시 공무원들과 함께한 미팅 자리가 있었는데, 그는 그 자리에 함께한 미군 장교들에게 심하게 미군정의 점령정책과 시민들에 대한 미군들의 거친행동을 나무란 적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금요일설교에서도 "사담 후세인은 우리를 억압했다, 그러나 사담을 대신해서 온 미군들은 더욱 더 이라크 상황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말하곤 했다. 그리고 그가 감옥에서 풀려난 시점은 팔루자 봉쇄가 풀리지 않은 시점인 4월, 미군은 전쟁의 긴장을 완하시키고 협상을 진행시키기 위해 일부 수감자들을 풀어주었다. 그는 그 시점에 풀려났고, 며칠 후, 폴 브레머 미군정 이라크 최고행정관이 보낸 사절이 모스크로 찾아와 그가 이 전쟁에서 저항세력들을 설득해 협상자로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그는 그 자리에서 "미군이 팔루자 시민들을 쏘지 않는다면, 팔루자 사람들도 똑같이 할 것이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예에서도 볼 수 있듯이, 미군이 아브그레이브에 저항세력이라 간주하고 끌고가는 이라크인의 많은 수가 '바트당' '사담 후세인'과 관련성이 극히 희박한 경우이다. 미군에 저항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들이 실제로 "저항세력에 가담하여 저항활동을 벌인 경우"와 "사담 후세인을 지지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현재 이라크의 많은 사람들은 "사담 후세인이 독재자였다"고 거침없이 말한다. 그러나 그들이 꼭 그 말 뒤에 덧붙이는 말이 있다.

"그러나 미군은 사담 후세인보다 더 나쁘다. 무고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가?" 팔루자 사람들이 지금처럼 극도의 미군에 대한 저항감을 가지된 것은 미군정의 점령 1년의 결과이지, 처음부터 극도의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물론 팔루자 다른 지역에 비해 반미감정이 다소 심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지난 1년동안 저항세력 소탕작전의 명분으로 이곳 사람들의 문화를 무시한채 집안에 납입해 무고한 사람들을 잡아가는 등의 민간인 피해를 초래하고, 지난 4월의 팔루자 봉쇄와 학살의 결과로

반미감정이 극에 달해 있는 실정이다. 팔루자에서 이런 극도의 반미감정은 미군이 자초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5. 팔루자 시민들의 저항활동

“나의 사촌이 죽었다. 그러나 아무도 죽은 시체를 치우지 못하고 거리에 두고 팔루자를 떠났다. 저격수들의 공격으로 집 앞의 정원에도 못 나갔다.”

(Shaha Miznas, 39 세, 여)

지난 4 월의 미군의 팔루자 공격은 이웃의, 가족의, 죽음을 목격하고 팔루자를 떠났던 팔루자 시민들에게는 전쟁의 공포와 함께 미군에 대한 극도의 분노를 가지게 만들었다.

이들의 증언에서는 언제나 공포와 함께 미군에 대한 적개심이 묻어있다.

팔루자 봉쇄가 풀리기 전, 거의 많은 수의 수감자가 팔루자를 비롯한 수니삼각지대의 주민들로 채워졌던 아브그라이브 포로수용소에서 포륙학대와 고문에 대한 사진들이 세계 언론에 의해 공개되자 그 분노를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증폭됐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미군들은 팔루자 주민들을 폭격으로 총격으로 죽이고, 가족들을 빼앗고, 감옥에 가두고, 동물취급을 하며 성적으로 유린까지 한 것이다. 팔루자 사람들이 폭격으로 죽을 때, 미군은 아브그라이브에서 팔루자 주민들을 능욕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팔루자 주민들이 미군에게 가지는 반감을 반미감정이라는 이 한 단어 안에 결코 담을 수 없다. 그들은 생명을 걸고, 온 몸으로 미군의 점령에 저항하기 시작했다.

그것이 지난 4 월 미군과 팔루자 저항군과의 전투를 보면 알 수 있다. 미군은 최첨단 무기를 다 동원해 팔루자를 공격했으나 저항군들은 소총 한자루 들고 미군과의 전투를 20 여일 이상 끌며 팔루자를 지키는데 성공했다.

그리고 이들이 죽음으로서 미군에 맞서기 시작한 것은 지난 1 년동안 미군정의 점령 결과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제 사담 후세인은 팔루자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지워졌다.

그를 대신해서 나타난 미군에 대해 팔루자 사람들의 심정에는 어떤지 자세히, 깊이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를 자세히 알고 이해하기 위해서 미군에 저항하는 활동을 하는 저항세력(무자헤딘)의 가족들과 실제 저항활동을 하는 무자헤딘을 만나 면담을 가져보았다.

■저항세력의 가족 인터뷰

파우지야 셰이커(Fawziya Shaker, 61 세). 남편은 15 년 전에 죽었고, 그녀 혼자 13 명의 아이들을 키웠다. 딸 일곱과 아들 여섯. 지금은 모두 장성해 결혼을 했다. 이 여섯 아들 중 막내인 이삼(Issm. 사망 당시 23 세)이 무자헤딘이었다. 이삼은 4 월 6 일, 팔루자에서 미군의 무장항공기에 의한 폭격으로 전사했다.

파우지야가 살던 팔루자 집은 하이-나잘(Hay-Nazzal)이라는 지역에 있고, 넓은 거실에 방이 4 개가 있다. 이 집에서 결혼한 아들 가족들과 모두 함께 살았다. 대식구가 살기에는 좁은 집이었지만, 파우지야가 분가를 반대해 그녀를 포함해 21 명의 가족이 모여 살았다. 이삼이 사망하고, 다음 날 묘지에 묻고 파우지야의는 아들과 그리고 첫째딸 가족을 포함하여 다른 딸들과 사위를 다 데리고 피난길에 올랐고, 그녀의 그늘 아래 피난생활을 하고 있었다.

파우지야를 두번째 만나 인터뷰 하던 날, 첫날 “아들이 무자헤딘이었으며, 내 아들이 죽었다”며 울음을 터트리던 모습보다는 한결 차분해진 목소리로 무자헤딘 아들에 대해 얘기를 들려주었다. 지난해 12 월, 막내아들 이삼이 그녀에게 다가와 “저항세력에 가담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말했었다. 그녀는 내심으로는 걱정이 되었지만, 아들이 세운 뜻을 말리진 않았다. 그리고 이삼은 다섯달동안 미군에 대한 저항활동을 벌이다가, F-16

미군 전투기에 의한 대규모 용단폭격이 있었던 지난 4월 6일, 목숨을 잃었다. 아들의 시신을 거두어, 다음날 묘지에 그를 묻으며 파우지야는 울지 않았다. “내 아들은 이슬람 문화와 고향과 가족을 지키다가 죽었다. 이삼은 생전에 나에게 내가 죽더라도 울지 말라고 말한 적이 있었다. 나는 이삼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마지막 그 아이 앞에서 울지 않았다. 그리고 그 신의 뜻대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축복해주었다.”

이 예에서 보면 파우지야는 아들의 죽음을 “이슬람 문화를 지키다가 죽어서 좋은 곳으로 갔다(martyr)”라고 한다. 미군에 대한 극도의 저항감과 동시에 팔루자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무장되어 있다. 저항할 적과 그리고 죽음 이후에 갈 곳이 명확하다. 이런 죽음을 불사하는 저항이 지난 4월 미군의 팔루자의 완전 봉쇄 후 폭격에도 팔루자 사람들이 팔루자를 지킬 수 있도록 해준 힘이다. 팔루자 사람들이 단순히 소총 한 자루 들고 박격포나 쏘아댄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이들은 지금 저항하고 있는 적은 “술을 마시는 문화를 가진 미군들이 (무슬림은 술에 대한 극도의 혐오감을 가지고 있다), 이슬람 문화를 파괴하기 위해 이라크에 와서 우리의 형제들을 죽이고, 무슬림 여성들을 욕을 보이고 있다”고 여기고 있는 것이다.

저항세력의 가장 큰 영광은 Matyr로서 죽는 것이다. 이슬람교를 지키다가 순교하는 것을 가장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다. 현재 바그다드 시내를 중심으로 연일 계속 되는 자살폭탄테러도 이러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종교적인 철저한 무장은 지난 1년동안 미군이 팔루자 인근 수니삼각지역에서 한 가택수사에서 심하게 자극됐다. 미군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군홃발로 집안으로 들어와 집안 남자들을 폭력적으로 구타하고, 잡아가는 일을 반복해왔다. 이것은 이라크 문화에서 보면 극악무도한 것이다.

여성들의 경우, 가족과 친척 외에는 절대로 집안으로 들어온 남자에게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다. 그리고 이라크에서는 외부에서 온 손님들을 극진하게 대접해서 보내는 것이 문화이다. 그리고 손님 또한 이 문화에 맞추어 정중하게 들렀다가 떠나는 것이 예의이다. 그러나 미군은 예고없이 찾아들어 폭력적인 언행을 보이며 남자들뿐 아니라 여자들도 잡아가지도 했다.

이것을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문화를 짓밟는 행위로 보고 있다. 팔루자에서 만난 모든 이들이 미군정의 지난 1년동안 저항세력 소탕작전을 수행하며 했던 이러한 언행을 고발했다.

■저항세력 무자헤딘 인터뷰

팔루자 사람들의 저항이 반미감정을 넘어서서 이슬람문화를 지키기 위한 지하드(성전)을 치루고 있음을 입증하는 다른 인터뷰가 있다. 이는 실제로 이슬람저항세력에 가담하여 저항활동을 벌이고 있는 무자헤딘이었다.

그는 지난 4월 전까지는 타이어와 전기설비에 필요한 물품들을 파는 가게 주인이었다. 이름을 밝히기 꺼렸고, 아부 비랄(Abu Bilal, 27세)로 불리지길 원했다.

그는 4월 5일 팔루자가 봉쇄되고, 전투가 시작되자마자 가게문을 닫고 친구와 함께 지하드(성전)에 참가했다.

“미군 점령자들은 십자군들로 이슬람을 파괴하기 위해 우리 땅에 왔다”고 말하며, 이 전쟁에 참가한 배경을 설명했다.

“나는 팔루에서 모든 시간을 보냈고, 절대로 팔루자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고 말하는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있었다. 이것은 지금의 이라크에서 팔루자는 반미 성지이기 때문이다.

전투가 있었든 첫 주엔 그와 친구 나와프(Nawaf)는 하사관의 계급으로,

알-나잘(팔루자 진입 검문소에서 가까운 지역으로 미군과의 교전이 치열했던 지역) 지역에서 전투에 참가했다.
이때, 나와프가 복부에 총상을 입고, 라미디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그의 부상의 정도가 심해 3주 후에 죽었다.

“나는 그가 부러웠다. 왜냐하면 그는 천국으로 갔기 때문이다.(Because he died a martyr)”
그리고 이어서 그는 다시 말한다.

“미군은 우리 도시들을 점령하고, 우리를 모욕하고, 우리의 문화와 관습을 폭력적으로 짓밟았다. 쿠란에서 말하길, 우리의 명예를 위해, 가족과 고향을 위해 죽으면 천국으로 간다(martyr)고 했다. 우리는 우리의 도시를 지켜냈다.”

그들은 지난 4월의 전투가 그들의 승리라고 믿고 있었다. 끝내 20여일 넘는 시간동안 미군은 팔루자를 봉쇄하고 폭격을 퍼부었지만, 한번도 탱크를 이끌고 직접적으로 팔루자에 진입하지 못했고, 마지막에 궁지에 몰린 미군이 전 군장성과 합의를 해서 이라크군과 함께 치안유지를 하는 쪽으로 협상안을 이끌어 낸 것이 그들의 승고하고 순수하게 흘린 피를 통해 이뤄낸 결과라고 믿고 있다.

6. 팔루자 민간인 학살 보고서를 정리하면서

1차 보고서를 내면서 “미군은 1년 전 바그다드를 쉽게 점령했을지 몰라도, 1년동안 이라크 점령정책은 처참하게 실패했다”고 기술한 바 있다.

-이슬람 종교 문화에 대한 무지.

-점령정책의 부재

-오만한 제국주의

1년 전 미군은 “이라크의 민주주의와 이라크 평화”를 약속하며 후세인정권을 축출하기 위해 전쟁을 치렀다. 그러나 이제 이라크인들은 백이면 백 “이것이 민주주의냐?”고 묻는다. 여전히 미군은 “이라크의 민주주의를 위해 미군이 주도하는 연합군이 이라크에 주둔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1년 전 이라크인 중 후세인으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해 전쟁이라도 수긍했던 일부 사람들마저도 주권을 빼앗겼을 때 외국 군대에 의해 어떤 희생이 뒤따르는지 이번 팔루자 민간인학살을 통해 극명하게 보았다. 그리고 팔루자에서 끌려간 주민들이 아브그레이브 포로수용소에서 어느 지경까지 인간이 짐승취급을 받을 수 있을지 온 세상이 다 보는 앞에서 유린되는 장면을 똑똑히 지켜보아야 했다.
현재 바그다드는 외국인에 대한 폭탄테러와 자살폭탄테러와 이라크 고위관리들에 대한 암살이 끊이질 않고 있다. 또한 요인암살에서 그치지 않고 발전소와 송유관을 비롯한 기간시설 파괴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라크인들이 분노가 이것만으로 설명될 수 없을 것이다.

서구 사회로부터 끊임없는 수탈과 경제체제, 전쟁, 그리고 점령의 결과가 만들어낸 비극의 결과이다. 다른 저항의 수단을 갖지 못하고, 이들은 이제 자신의 생명에 불을 붙이고 미군정의 탱크에 뛰어들고 있다. 이것이 이라크의 현실이다.

이라크인들의 저항의 방식을 탓하기 전에, 지난 1년동안 이라크에서 미군이 주도하는 점령당국이 저지른 수없는 민간인피해와 민간인학살을 통해 반미감정이 부추겨지고, 현재는 목숨으로 저항하는 데까지 이르렀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